



고린도 문화 탐방 : '명예'나 '치욕'이냐!

고린도는 원래 로마인들이 세운 도시였어요. 그러나 여러 이유로 인해 대부분의 로마인들이 떠나고, 그 자리를 외국인들이 차지하기 시작했어요. 외국인들은 고린도를 훌륭한 상업도시로 변형시켰어요. 그러나 고린도에 남아 있던 로마인들은 여전히 그들을 '야만인'이라 부르며 무시하기 일쑤였지요. 그래서 고린도의 많은 사람은 명예를 쌓아 다른 이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했답니다.

당시의 명예는 오늘날의 돈과 같이 사용할 수 있었어요. 명예가 높은 사람일수록 더 좋은 직업을 얻었고, 더 좋은 지역에서 살 수 있었지요. 왕자라는 신분처럼 태어나면서 자연히 얻는 명예도 있었지만, 사람들은 토론을 통해 노력으로 얻는 명예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명예가 높은 이들에게 가르침과 도움을 얻기 위해 많은 돈과 뇌물을 바쳤고, 명예를 높이기 위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른 이들의 약점을 잡아 토론을 벌이곤 했답니다. 누군가의 도전에 반응하지 않는 것은 치욕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토론 신청을 거절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웠어요.

이런 문화의 영향으로 고린도교회 역시 토론과 논쟁이 가득했어요.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리고 복음을 화려하고 근사한 말로 전달하려고 애썼어요.

고린도교회의 더 큰 문제는 바울과,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분열되어 논쟁을 일삼는 데 있었지요. 성도들은 자신의 선생님을 자랑하느라 바빴고, 더불어 자신의 언변을 통해 인정받으려고 했답니다.



약점 페스티벌

전 세계 사람들이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는 '약점 페스티벌'이 열렸어요! 여러분은 당당하게 밝히고 싶은 약점이 있나요? 여러분의 약점을 적어 보세요.

· 이름 :

· 약점 1 :

· 약점 2 :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하신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장점 때문에 교만하지 말고, 약점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성령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바울은 왜 자꾸 편지를 썼을까?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편지를 썼어요. 성경을 보면 바울은 고린도교회뿐 아니라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내고는 했지요. 그런데 왜 바울은 직접 찾아가지 않고 편지를 썼을까요?

하나님께서서는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이방의 여러 나라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었지요. 그래서 바울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한곳에 오랫동안 머무르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뒤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계속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세우거나 돌보던 교회에 전해야 할 이야기가 있을 때 편지를 썼던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바울이 어떤 교회나 사람에게 쓴 편지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이 편지들을 "바울서신"이라고 부른답니다. "바울서신"에는 아래와 같은 편지들이 있어요.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전·후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편지)

